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4. 1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4 / 12



표지사진 · 회원

| | | |
|--------------|----|-----------------------------|
| 다시 읽는 산방한담 | 04 |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 |
| 처음 마음으로 | 09 | 일상적인 수행 |
|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 14 | 2014년도 「아름다운 마무리」 활동을 되돌아보며 |
| 내 마음속 풍경 | 18 | 홀몸 할머니 댁에 다녀오던 날의 단상 |
| 공감대화로 소통합시다 | 21 | 공감대화로 소통합시다 |
| 법정스님 책 속의 책 | 24 | 마지막 손님 |
| 참교육 이야기 | 26 | 공부 못하는 농과 상종하지 마라 |
| 샌디에고 암탉 | 30 | 19년 후, 같은 무대에서 |
| 길은 사람 따라 흐른다 | 33 | 꽃보다 아름다운 인연 |
| 사색의 뜰 | 36 | 나에게로 가는 여행 |
| 한국불교전설 | 38 | 나녀(裸女)의 유혹 |
|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 42 |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
| 길상사 소식 | 50 | |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238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글 • 법 정(法 頂)

입동(立冬)이 지난 11월의 숲은 가을잔치를 마치고 텅 비어 있다. 나무들은 겨울을 받아들일 채비를 끝낸 채 묵묵히 서 있다. 첫눈이 내리고 개울가에는 살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달력에 의하면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난’ 그런 계절이다.

한동안 오두막을 비워두고 있다가 돌아와 보면 오두막은 주인을 기다리며 사뭇 여위어 있다. 집 둘레에 노루와 토끼들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보면 그 애들이 빈집을 지켰던 모양이다. 문을 열어젖히고 먼지를 털어내고 쓸고 닦고, 아궁이에 균불을 지펴 굴뚝에 허연 연기가 피어 올라오면 이때 비로소 짐은 숨을 쉬기 시작한다.

집은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집으로서 빛을 발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혼이 빠져가간 육신처럼 그것은 단순한 자재로 엮어진 형해(形骸)일 뿐이다. 난로에 불을 지피 마루방에서 냉기를 몰아내고 방 안에 훈훈한 온기가 돌면, 오두막이 좋아라 하며 제 기능을 발휘한다. 집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아늑하고 편안함이 차향기처럼 은은히 번진다.

지난밤에는 늦도록 책을 읽었다. 현대 문명사회의 비판서이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지혜를 담은 일종의 명상서적이다. 류시화 시인의 유창하고 아름다운 번역으로 펴낸 것인데, 책 이름은 <나는 왜 너가 아니라 나인가>이다.

백인 추장(미국의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땅을 팔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우리가 공기를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판단 말인가. 우리로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재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사들이겠단 말인가.”라고 항변한 시어를 추장의 그 유명한 연설문을 비롯하여, 여러 부족의 추장들이 문명사회에 던진 대지와 인간의 관계를 역설한 글들로 엮여 있다.

20세기가 끝나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어찌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지혜가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물질문명의 찌꺼기인 온갖 공해와 환경오염이 날로 극심해 가는 오늘날, 원천적으로 자연인인 인디언의 삶의 지혜를 빌어서 극복의 문을 찾아야 한다.

그들은 문명인들에게 말한다.
“당신들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발

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대지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들의 삶도 풍요롭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이 땅을 더럽히면 곧 그들의 삶도 더럽혀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 또한 우리의 일부분이다.”

그들은 문명인들의 도시 풍경에 대해서 자신들의 눈에는 하나의 고통이라고 하면서 그 증상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당신들의 도시에는 조용한 장소라는 곳이 없다. 봄의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듣거나 곤충의 날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곳이 없다. 도시에서 들리는 소음은 우리들의 귀를 욕되게 할 뿐이다.

인디언은 호수의 수면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하는다. 한낮에 내린 비에 씻긴 바람 그 자체의 향기를 좋아한다. 우리들에게 공기는 더없이 소중한 것, 그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혹은 사람이

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숨결을 나누어 갖기 때문이다.”

백인과 인디언들은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글라라 수우족의 추장 ‘네 자루의 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명인들은 뭐든지 글로 기록하며, 그래서 항상 종이를 가지고 다닌다. 그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워싱턴에는 그들이 우리 인디언에게 했던 약속을 기록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디언은 종이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진실이 담긴 말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된다. 인디언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그러나 문명인들의 경우는 일단 서류를 잊어버렸다 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네르 페르세족의 추장 ‘고산지대로 달려가는 천둥’은 인간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좋은 말’

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좋은 언어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진 못한다. 문명인들은 말만 늘어놓고 아름다운 언어에 매혹되지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다. 아무런 결과도 없는 ‘말뿐인 말들’에 나는 지쳤다. 그 많은 좋은 언어들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에는 찬바람이 분다. 세상에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말을 떠들어 대고 있다.”

백인들로부터 번번이 배신을 겪은 끝에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멸망사〉를 펼쳐 보면, 백인들이 원주민인 인디언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해댔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다. 같은 인간으로서 인디언에 대한 연민의 정과 함께 침략자인 백인들에 대해서 분노를 억제하기 어렵다.

천둥 추장은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가 문명인들의 학교를 마다하는 이유가 있다. 학교를 세우면 그들

은 교회를 세우라고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끝없이 하느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위대한 정령(신)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위대한 정령이 만물을 만들어 놓은 대로 세상 것에 만족하며 손대지 않는다. 그러나 문명인들은 강이나 산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 바꿔 버린다. 그들은 그것을 창조라고 부르지만, 우리 눈에는 철없는 파괴로 보일 뿐이다.”

그는 대지를 적시며 흐르는 강과 내가 서 있는 이 대지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자기 조상이 묻힌 대지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들짐승보다 못한 자이다.”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하나뿐인 지구를 형편없이 허물며 더럽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텔라웨어족의 추장 ‘상처 입은 가슴’은 다음과 같은 지혜를 전하고 있다.

“우리는 대지 전체가 어머니의 품이고 그곳이 곧 학교이며 교회라고 믿는다. 대지 위의 모든 것이 책이며 스승이고 서로를 선한 세계로 인도하는 성직자들이다. 우리는 그 밖의 또 다른 교회를 원치 않으며, 우리를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답답함을 느낄 뿐이다.

홀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중심을 잃고 헤매게 된다. 인디언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평원이나 숲속에 들어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문명인은 그것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 인간이 이 대지에서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자기 확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신 앞에 겸허해진다. 자연만큼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치는 것도 없다. 자연만큼 순수 의 빛을 심어주는 것은 없다. 자연과 떨어진 문명인들은 문명화되는 속도만큼 순수의 빛을 잃는다.”

이런 책을 읽고 있으면 내 영혼이 이고 야만인인지를 생각해 하는 감
 보다 투명해진다. 머리맡에 두고 수 동적인 잠언이다. 1993
 시로 펼쳐 볼 지혜의 말씀은 바로 이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런 책이다. 어떤 것이 진정한 문명인

글 • 덕 운(德耘)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접 출력(2015년 1월 중순 이후) 및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영수증 출력 가능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정성껏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모임은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후원금 및 물품에 대
 한 후원내역을 집계하여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
 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
 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
 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부터는 대
 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www.yesone.
 go.kr)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모임에 등록
 된 후원회원(가족)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
 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도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중앙모임 - 참여, 후원 - 나의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
 산 간소화 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기가 어려운 분께서는 본모임 사무국으
 로 전화를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또한 이사를 가시거나 전화번호가 변경
 되신 분께서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사느
 나 부자로 사느냐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의 분수에 달린 것입니다. 각자
 의 분수에 따라 편안하게 살면 가난
 하여도 즐겁고, 분수에 안분(安分)하
 지 못하면 부자라도 능히 근심스러
 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능히 자신의 분수를 알고 욕심내지
 않고 편안하게 살 것 같으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여 잘 살아갈 수가 있
 고, 가히 자기의 행복(幸福)을 다치
 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있다
 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를 이루지 못하고 생사
 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탐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탐욕
 심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재물과 색(色)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수를 망
 각하고 재색(財色)에 탐닉하게 되면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패가망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色)이라는 것은 일어났
 다 꺼지는 모든 기멸심(起滅心)을 조
 장하고, 번뇌의 뿌리가 되어 해탈을
 방해하는 근본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사는 색욕(色慾)에
 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를
 뛰어넘어 해탈의 저 언덕에 이르러
 면 먼저 생사의 근원인 기멸심과 번
 뇌를 초월해야 하는데, 색욕은 번뇌
 와 기멸심을 근원적으로 조장할 뿐
 이라는 것입니다.

또 음행은 밝은 마음을 어둡게 만
 들고 청정한 마음을 탁하게 몰들입니

다. 어둡고 탁한 마음은 생사윤회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 승려들에게는 음행을 전적으로 금하시고, 재가자들에게는 사음(邪淫)을 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색욕도 본능이요, 식욕과 재물욕도 본능인데 이를 어찌하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방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을 핑계 삼아 그것을 내버려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밝은 지혜를 등지게 하고, 무명심(無明心)에 바탕을 둔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본능은 결과적으로 어둡고 추한 업장만을 조장시킬 뿐입니다.

탐욕심이 축적 본능이고 잘 살려고 하는 당연한 욕구라 하여 아무런 절제 없이 무한정으로 추구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온갖 비리와 불의까지 돌아볼 줄 모르는 추한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탐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심이 일어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 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재물을 얻게 되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사고가 나서 그 재물이 흩어져 버립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재물은 화를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 지혜로운 이가 말하기를 “재물을 탐하는 자는 독사를 기르는 것과 같고,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똥으로 행복(形福)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나도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로되 똥과 뱀을 멀리하려는 것뿐이고, 또한 부유한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로되 더럽고 나쁜 것을 제(除)하려고 할 뿐이다.

재물 멀리하기를 독사를 멀리하는 것과 같이 하고, 이익 버리기를 똥을 버리는 것과 같이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도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세생생(世世生) 쌓이고 쌓인 탐애심이 쉬지 않아서 반드시 생명을 상하고 행복을 더럽히게

되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지나친 탐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탄시키니 잘 제어하여 생명과 행복을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재물과 색욕뿐만 아니라 진심(眞心)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하랴’ 하는 마음가짐으로 무턱대고 화를 낸다면, 이 세계는 폭력과 무질서와 아비규환이 판치는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본심으로 돌아가 끝없이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들이 거꾸로 흘러갈 때 일어나는 전도된 현상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전도되면 우치심(遇痴心)이 솟아나고, 자비하고 인자한 마음이 전도되면 진심(眞心)으로 탈바꿈되며, 거룩하고 청정한 마음이 거꾸로 흐를 때 성본능인 음심(淫心)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된 마음들을

본성에 비추어 자꾸 털어내고 닦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修行)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간의 조그마한 일을 하나 성취하는 데도 무진한 노력이 필요한데, 범부가 장차 부처가 되려고 할진데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갖 번뇌 망상에 시달리며 윤회하는 현재의 중생 상태를 달게 여기지 말고 크게 한번 발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에 함몰되지 말고 공부에 원을 세우고 끝없이 기도하고, 독경하며, 화두와 씨름하다 보면 탐심, 진심 등의 망상이 저절로 쉬어지고 잡념이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 없는 일상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불법이 박해받던 시기에 공부에 원을 세우고 치열하게 정진한 벽송 지엄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의 고승 벽계정심(碧溪淨心)

선사와 벽송지엄(碧松智嚴)선사의 인연은 불교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때 이루어졌습니다.

불상을 파괴하고, 승려를 환속시켜 사냥터의 동물몰이꾼으로 삼는 등 연산군의 횡포가 불교를 존립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자, 황악산 직지사(直智寺)에 있던 정심선사는 속인으로 변복하고 산 너머에 있는 물한리(勿罕里)에 들어가 불법을 전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를 간절히 구하고자 했던 지엄스님이 물어 물어 정심선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 찾아온 지엄스님에게 선지(禪旨)를 일러 주기는커녕 매일 일만 시켰습니다.

3년을 함께 지내면서 무수히 '도(道)가 무엇인가?'를 물었으나 정심선사에게서 법문 한마디 듣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지쳐버린 지엄스님은 행장을 꾸리고 정심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3년 동안 스님을 모셨지만, 도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매일 일만 시키시니 더 있어본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가거라.”

지엄선사는 체념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언덕을 넘어서 내려가는데, 뒤따라온 정심선사가 고갯마루에 서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엄아! 나를 보아라.”

정심선사는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지엄스님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매일 밥을 지으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차를 달여 오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나무하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밭을 매라고 할 때 설법하였는데, 네가 물렸으니 오늘은 이 법을 받아라.”

그리고는 불끈 권주먹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엄선사는 확철대오(廓徹大悟)하였습니다.

스승인 정심선사는 제자가 도를 물어도 법문 한마디 하지 않고, 계속 일만 시켰습니다. 그럴수록 지엄스님의 도에 대한 갈구는 더욱 간절하게 커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연이 이미 익을대로 익어 있었고, 정심선사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불끈 권주먹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주력을 외우며 참선정진을 하다 보면 도는

저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 도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것이 기연을 만나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새벽 샛별 속에 깨달음을 주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삼매에 들어 마음이 고요해져서 맑아지고, 밝아지면 자성

불(自性佛)이 저절로 발현되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도입니다. 모든 곳에 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안다면 쓸데없이 바깥으로 치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 간경, 주력, 염불, 그 어떤 공부를 하던지 간에 자기의 마음자리에 비추어 공부를 해야지, 밖에서 찾는 공부를 하여서는 성불할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 불기 2556년 윤9월 초하루 법문 (2014년 10월 24일)

연말 김장 자원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김장은 어렵고 외로운 결식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길상사」 김장은 겨울 동안 수많은 대중들을 위한 공양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보시 공덕지으시고, 그 공덕으로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 접수 / 문의 : (새맑고 향기롭게 02)741-4696 & 길상사 종무소 02)3672-5945

맑고 향기롭게 김장 담그는 날

2014년 12월 3일(수)~4일(목)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길상사 주차장 -

길상사 김장 담그는 날

2014년 12월 9일(화)~10일(수)

- 길상사 공양간 -



2014 「 」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 질병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으로 삶을 마감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노인분들이 2011년 기준으로 1만 5천 906명입니다. 30분마다 한 분이 저 세상으로 건너가십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 자살률이 젊은층의 자살률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3%, OECD 국가 평균의 4배로 세계 1위입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2013년부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비하지만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 올해에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결연대상 어르신들을 소개했었습니다.

4월의 결연대상자는 이석연 어르신이었습니다. 86세의 어르신은 15년 전 자궁암과 위암을 앓던 아내와 사별하고 폐지를 주우며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5월 결연대상자 신영화 어르신은 자식들이 암에 걸리거나 사업을 하다 빚을 저 어르신을 돌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빚을 갚는 것도 어르신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6월의 결연대상자 장희순 어르신은 허리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이제는 누워서 적당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바람이 있으시다면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바깥나들이 한 번 나가보는 것입니다.

7월 결연자 강성녀 어르신은 27세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이후 첫째 아들도 먼저 떠나보내야 했으며

둘째 아들은 연락두절입니다. 대신에 손녀를 애지중지 공부시켜 시집 보낸 것을 유일한 자긍심으로 알고 사십니다.

전세를 얻으려고 은행대출을 받았다가 월세가 되자 그 돈으로 계를 들어 허망하게도 다 날린 김순덕 어르신은 8월의 결연대상자입니다. 계주가 남편의 암치료비로 껌돈을 써버려 생긴 일이지요. 어르신은 급하게 빌린 생활자금 50만원을 갚지 못해 매달 5천원을 이자로 지출중이셨지요.

9월의 결연대상자는 박정석 어르신으로 손자가 기초수급자이고 어르신은 친구 분의 가게에서 배달 일을 도와드리며 한 달에 10만원을 벌고 계십니다. 무허가 집이라 비만 오면 천장에선 비가 새고 쥐들은 자기 집인 것처럼 거실을 오가 쥐뿔이 놓여 있습니다.

10월 결연대상자 이재성님은 6월의 결연대상자 장희순 어르신의 아들로 49세로 젊지만 30대 때부터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으로 무릎과 관절마다마다 혹이 자라고 있

어 하루 일하고 하루 쉬어야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지요.

11월의 결연대상자 이성봉 어르신은 오른쪽 팔목이 절단된 장애인으로 폐렴으로 몸이 불편하지만 겨울 난방비 지출이 생활의 큰 부담으로 춥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에너지빈곤층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 달에 두 번, 길상사 경내에서 모금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동안 법정스님의 청빈의 삶을 친견하고 나눔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를 방문하신 참배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활동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cms자동이체 회원가입과 현장모금함에 정성을 담아주셨습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염원이 담긴 동전 모금통을 가져가셨고 가득 채워진 사랑으로 되돌려주셨습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온라인 모금활동과 더불어 인터넷 포털 'Daum'회

망해'에 어르신들의 사연을 올려 모금을 진행했었습니다.

'Daum희망해'는 모금 제안부터 진행, 참여까지 네티즌이 만들어가는 네티즌 모금 서비스로서 네티즌 한명에서 시작된 희망제안이 500명 네티즌의 희망서명을 통해 진위여부 등의 심사를 거친 후 네티즌에 의해 모금이 모아지는 사이트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진행한 희망해 모금에서는 현재까지 16,000여명의 네티즌(netizen)이 서명과 모금으로 동참해주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분들이 계좌송금으로도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총 모금액 :**

26,183,514원(가결산)

1. 후원금(회원가입 및 계좌송금) :

13,922,010원

2. 인터넷 다음 '희망해' 모금 : 7,878,374원

3. 갈상사(현장) 캠페인 모금 : 2,459,460원

4. 동전모금 : 1,923,670원

(* 참고 :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금된 내역이며, 현재 모금 진행중이거나 최종

심사후 입금될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후원금은 최종적으로 집계된 후 모금전액 결연대상자의 생계비 후원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빈곤층은 12~20%로 연구기관마다 발표 수치가 다르지만, 대략 1천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정규직 850만, 장애인 300만, 청년실업자 390만등을 따져볼 때,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빼다 하더라도 대략 1천만 명이라는 수치를 어렵지 않게 추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에 집중되며 그 고난의 모양이 한층 더 우울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우리 시대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인 사회 현상은 한국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수치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전체적인 자살률 역시 최근 10여 년간 세계 1~2위를 다투었으나, 노인 자살률은 그 수치가 훨씬 월등합니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81.8명으로, 미국의 14.1명, 일본의 17.9명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정상적인 사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효(孝)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민족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노인빈곤이라는 특이한 현상에 대한 몇몇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한국의 열렬한 교육열과 결혼 과소비에 기인했다는 설인데,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결혼 준비에 모든 걸 올인했기 때문에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같이 효 정신이 충만한 국민이라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올인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청년 실업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이 시대에 부모들의 자

녀 양육비용은 한층 더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 후엔 노인빈곤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고, 2030년 즈음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 우리나라 노인들은 과거 6.25전쟁과 보릿고개 시절을 견뎌왔고,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역군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칠고 다이내믹한 시대를 걸은 역사의 산 증인들이며, 그들이 이룬 토대 위에 대한민국은 현재의 풍요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인빈곤과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젊은 층의 의식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어르신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 • 이경숙(수필가)

열심히 성당에 나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들은 대부분 당신들이 앉은 고정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안 나오시면 금세 알 수 있다. 이 분은 연세가 있고 몇 년 새 병환과 사고로 여러 번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셨다. 그러는 사이 그렇게 건강하시던 몸은 살이 다 빠져나가 가죽만 남으셨고 이젠 살짝만 밀어도 넘어질 만큼 쇠잔해지셨다. 벌써 두 주째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당에 안 나오실 할머니가 아닌데, 싶어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호박죽을 쑤고 준비를 했다.

가는 길에 같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시는 할머니 한 분도 검사검사

찾아볼 요량으로 양손에 호박죽을 담은 냄비를 들고 집을 나섰다. 퇴근한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재빨리 설거지를 한다고 했지만 벌써 시간은 9시 반을 넘어서고 있다. 할머니들이라 일찍 주무실 수도 있는데 늦었구나, 싶어 마음이 바쁘다. 하지만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찾아볼지 모를 일이니 일단 가보기로 한다. 불이 켜져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다시 가는 수밖에.

할머니들이 사시는 아파트 앞에서 이쪽저쪽으로 살펴보니 두 맥 모두 불이 켜져 있다. 먼저 86세 되신 할머니 맥 벨을 눌렀다. 그 밤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할머니는 벨을 몇 번씩이

나 눌러도 문을 열어주질 않으신다.

“저예요, 어머니. 로사리아예요.”

이렇게 나의 신분을 밝혀도 귀가 어두워진 할머니는 알아듣질 못하시고 자꾸 ‘누구냐고만 묻는다. “일단 문부터 열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딱 말씀만 하신다. 한참을 실랑이 끝에 현관문이 열렸고 할머니는 의외의 방문에 화들짝 놀라신다.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었어.”

할머니는 7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다가 아들네와 합쳤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던지 1년도 못 돼 되돌아오셨다. 돌아오실 때는 아들며느리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셨다고 한다. 대신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려던 아파트를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신청하여 생활하신다.

죽 냄비를 비울만한 적당한 그릇을 찾으러 주방으로 갔더니 어디 한 곳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다. 원래 그랬

던 분이었다. 정갈하고 정리정돈 잘하시고, 폐가 나빠 얼굴이 퉁퉁 붓고 몇 걸음 걷다 쉬고 몇 걸음 걷다 쉬어야 할 만큼 힘들어 하시면서도 집안은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사신다. 하지만 그새 많이 노쇠해지셨고 시장가는 일도 힘들어하셔서 이전 누가 반찬이라도 해다 주는지 여쭙었다.

“어머니, 요즘은 누가 반찬이라도 해 와요?”

“누가 해 와? 내가 장봐다가 만들어 먹지.”

“.....”

자식을 여덟이나 두신 분이다. 내 부모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부모 일에 공연히 화가 난다.

대충 대화를 마치고 서둘러 할머니 맥을 나왔다. 한 분을 더 찾아뵈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분은 85세 되셨다. 예전에는 아들네가 바로 옆에 살았지만 어머니를 찾아오거나 살피는 일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는 두 부부가 어머니 집 앞을 거쳐 산책하면

서도 모른 척 지나칠 정도로 무심하다는 걸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 아들은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죄 털어갔고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갔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용자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한다.

이 할머니도 5,6년 전에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현재 혼자 사신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연금이 나와 운택하진 못해도 당신 드시고 싶은 것도 사 드시고 그럭저럭 생활하신다.

요즘 성당에 나오시지 못한 것은 ‘방안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기 때문’이라고. 앉고 서는 것도 어려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도통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많이 반가우셨던 모양이다. 시간이 늦어 주무셔야 할 것 같은데도 나를 놓아주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옆집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유모차를 밀고 다니긴 해도 바깥출입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옆집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갇혀 있어. 며느리가 문을 잠가 버리고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대.”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느리 흉을 보고 다닌다며 시어머니를 집안에 가둬버린 것이다. 현관문도 디지털 도어락이라 가족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 꼼짝없이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심심한 할머니는 베란다 방법창 너머로 세상을 엿보신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다. 이분들이 당면한 현실도 슬프지만 우리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공연히 쓸쓸해진다.

글 • 고현희(공감대학 개발원장)

사회적으로 소통이 회자되는 시기입니다. 이런저런 사회문제들이 불통으로 인하여 꼭 막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도 소통되지 않아 불화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소통하는 삶을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주기 바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나를 이해시키기는 더욱 힘듭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상대와 소통이 안 될 때 “왜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알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요?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소통이 되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

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억눌리지 않고,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말을 소통의 말로 바꾸어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폭력 대화를 하더라도, 그 말의 밑에 있는 느낌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이 눈 녹듯 녹으면서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렇게 소통되는 대화법이 ‘공감대화’입니다.

‘공감대화’는 미국의 임상심리학 박사 마셜 로젠버그(Marshall Rosenberg)가 만든 ‘비폭력대화’에 기반한

대화법입니다. 1984년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비폭력대화'로 비영리 평화단체 CNVC(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를 만들었고, UN은 유고슬라비아에 내전으로 인한 갈등 치유를 위하여 이 대화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 대화법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후반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화법은 치유와 소통과 중재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대화를 하는 방법은 4가지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느낌이 일어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여 말합니다. 느낌이 발생하게 한 것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충족되어서 혹은 충족되지 않아서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부탁인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에게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황 - 느낌 - 바람 - 부탁

항목을 넣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척 간단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력대화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사회가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폭력대화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부모가, 사회가 폭력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자신을 잘 이해시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대화를 보면, 공감대화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공감대화를 익혀 대화법을 바꾸어 간다면, 소통의 사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대화를 잘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쌍둥이 여자의 일이 기억납니다. 6살이던 두 아이는 맨발로 길

을 산책하고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언니가 타고, 그 뒷좌석에 동생이 탔습니다. 동생이 의자에 걸터앉아서 두 발로 앞 의자를 툭! 툭! 찼습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의자 발로 차지마!” 이 때 동생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이 글에서 잠시 눈을 떼시고 동생의 답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의 답을 생각하셨다면 읽어주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동생이 “왜?” 혹은 “싫어. 난, 재밌어” 이렇게 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은 언니는 “야! 차지 말라니까!” 하고 화를 내거나 “엄마, 애가 자꾸 의자를 차!” 하고 엄마를 쳐다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감대화를 생활화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자란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불편해?”

그 질문에 언니는 바로,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너그럽게 이런 말

을 했습니다.

“차도 돼!”

“응. 고마워!” 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의자를 다시 찼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받은 언니는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 불편하지만 차는 것을 참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공감을 받으면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모두 풍요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대화는, 부모가 입을 열면 “잔소리 시작이야!”라고 생각하고 바로 귀를 닫는 자녀들의 귀를 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 명령하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사회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귀 기울일 수 있게도 합니다. 그래서 공감대화는 소통입니다.

고현희님은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며 '공감대화 훈련원', '공소풍' 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 번호부터 공감대화에 대하여 6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읽고 감명을 받은 <마지막 손님>(다케모도 고노스케 지음)을 소개하고 싶다. 어떤 제과점에서 4년째 근무하는 열아홉 살 게이코惠子라는 아가씨의 이야기다. 제과점 이름은 춘추암春秋庵.

눈이 내리는 겨울밤 가게 문을 닫고 큰 길로 나섰을 때 지붕위에까지 눈이 쌓인 자동차 한 대가 어느 집을 찾는 듯 멍칫멍칫 지나갔다. 게이코가 혹시나 해서 돌아보니 그 차는 자기네 가게 앞에 정차했다. 게이코가 달려가 자동차 창에 노크를 하자 창문이 열렸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말했다.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앞으로 하루 이틀이란

말을 오늘 아침 의사로부터 듣고, 어머니에게 뭐 잡숫고 싶은 것이 있는냐고 물으니 “전에 오오쓰에 있는 춘추암의 과자를 먹었더니 무척 맛있더라. 한번 더 그걸 먹고 싶구나.” 하셨단다. 아들은 곧 “제가 사올 테니 기다리세요.” 하고 집을 나왔지만 때마침 눈이 내려 고속도로에 차들이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밤늦게 도착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미 가게의 문이 닫힌 후라 난감해 하던 참이다.

이 말을 들은 게이코는 가게 문을 열고 환자가 먹을 만한 과자를 손수 골랐다. 손님이 값을 치르려 하자 게이코는 이렇게 말한다.

“이 과자는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죠?” 하고 의아해 하는 손

님에게,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 가게의 과자를 잡숫고 싶다는 손님께 모처럼 저희들의 성의니까요”

“눈 오는 밤이니까 운전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문 밖에 나가 전송을 한 뒤 가게로 돌아온 게이코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그날 매상에 추가시켰다. 코트를 사기 위해 저축해 온 그 돈에서.

조그만 가게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조그만 당신의 가게에
사람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득 채우자.

이 말을 게이코는 자신이 근무하는 일터에서 손님을 대할 때마다 그대로 실천해 나갔다. 그 가게에 들른 손님들은 게이코의 이런 직업 정신에 하나같이 감동하여 그녀를 좋아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은 그것이 한낱 생계를 위한 방편이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소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고 자기 자신을 알차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만, 또한 그 일이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남을 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내 일이고 내 삶의 몫이다.

* 현재 다케모도 고노스케의 <마지막 손님>은 구리 료헤이의 대표작 '우동 한 그릇'에 수록되어 있다. 1989년 일본에서 한 국회의원이 낭독해 일본 국회를 울린 책으로 화제가 됐고, 이후 일본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이야기 '우동 한 그릇'.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사는 것, 가난하지만 베풀며 사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인을 위한 동화책입니다. - 편집자주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유부남과 유부녀가 선망의 대상' 학교 맞나?

‘유부남과 유부녀가 선망의 대상’이라니 학교에 무슨 유부남과 유부녀가 있을까? 또 그런 학생이 선망의 대상이라니? 경기도 R고등학교 예기다. 남녀공학인 경기 R고에는 전교 5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유리부스’ 지습실이 있다.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밖에서 그대로 보이고 자습실 책상도 전교 석차 순이다. 학생들은 이 유리부스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유부남(유리부스에서 공부하는 남자)’ ‘유부녀’라 부른다고 한다. 이런 ‘유부남’, ‘유부녀’가 이 학교에서는 선망의 대상이라한다.

웃을 수도 없는 반 교육이 어디 이 학교뿐일까? 기숙사의 동과 층을 성적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 잘하는 학생

과 공부 못하는 학생을 반을 따로 배정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런 학교에 과연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기숙형 공립학교인 충남대천고에서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기숙사에서 쫓아내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용 기숙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죄를 지은 사람조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유지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허물며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뒤떨어진 학생을 차별해 기숙사 입사까지 따로 둔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가당키나 한 일일까? 더구나 충남대천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립학교다.

대구 1초등학교의 3학년 한 학급에서는 정기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마다 급식 받는 순서가 바뀐다. 시험 점수가 1등인 아이부터 꼴등인 아이까지 줄을 서서 성적순으로 급식을 받는다.

애기가 나왔으니 다른 사례를 더 들어보자. 울산 B고는 전교 30등까지만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학교는 점통터위일 때 교실엔 에어컨을 안 틀어도 기숙사동에서는 항상 에어컨을 가동한다. 기숙사 학생들은 논술학원 강사 특강 등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광주 C고는 시교육청이 ‘심화반’ 명칭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자 ‘수박반(수능대박반)’으로 이름만 바꿔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반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부터 밥을 먹게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왜 이런 현실을 침묵하고 있었을까?

초등학생은 그렇다 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짓을 하는 현실을 중·고등학생들은 왜 병어리가 됐을까? 학부모들도 그렇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부모는 특혜를 누리는 대접을 받으니까 그렇다 치고 피해자 부모들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참고 견디면 내 자식에게도 그런 행운(?)이 돌아 올 것이라고 기대해서일까?

교사들은 어떤가? 교육자라면서 그것도 수천수만의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교육적인 참담한 현실을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이런 일을 기획한 교장들은 정말 법도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들일까? 참교육을 한다는 전교조 교사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현실에 침묵한다는 게 공범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언론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침묵하면서 저질러진 천인공노(?)할 범죄를 가능케 한 원인제공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마디로 진단하면 ‘내 자식과 내 제자를 출세시키고 싶은 학부모와 교사, 이런 현실이 돈벌이에 유리하다는 사교육과 이해

관계가 무관하지 않은 언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교육부가 만든 합작품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을…….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보자. 학교폭력이 어디 학생들끼리 저지르는 왕따나 주먹질뿐일까?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수천억의 예산까지 투입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정부나 사회단체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할까? 그건 폭력이 아니라고 할까?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람들은 작은 것에 분노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란 교육하는 곳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서열을 매기는 경쟁이 목적이 됐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밝힌 현상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를 잘 받아 학급에서 또 전교에서 '일등' 하는 것……. 그래서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에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 여부가 교육의 목적이 되고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교육과정은 뒷전이 돼도 좋다? 학교니까 인권 따위는 유린되어도 좋은가? 교육이니까? 정말 그럴까? 무법천지가 된 학교, 분명히 교육목적이 있고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따로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무시되고 오직 '일등지상주의'로 향해 치달고 있는 막가파식 반교육을 가능케 한 이유가 그게 전부일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사회도 학교도 해서는 안 될 게 있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될 일, 그런 일을 학교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아무리 사악한 자본주의라도 물과 공기만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과 공기, 그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교육도 그렇다. 물과 공기, 그리고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사마시고 돈이 없어 물과 공기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숨도 쉬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으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이나 의료도 그렇다. 그게 돈벌이의 대상이 되면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온갖 술수를 부려 상품으로 포장해 돈 많은 사람에게는 고급상품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질상품을 수요하게 만들어 놓는다.

자본주의니까 가능한 일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급자는 정부와 학교이고,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199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고시로 발

표하면서부터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하기 전부터 대한민국에는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었다.

‘서울대학’이라는 병이다. 서울대학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만 나오면 출세가 보장되고 사람의 인품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모른 채하고 살아야 하는가?

학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육자가 교육을 포기하게 하고, 언론을 침묵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학벌사회다. 일등 지상주의가 지고지선이 된 사회, 교육이 상품이 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다.

누가 이런 학벌사회를 두고 학교에만 돌을 던지겠는가?

19 ,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고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으로 출근하던 40여 년. 은퇴를 앞둔 남편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일지 고민했다. 한국에서처럼 술도 자주 먹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곳 생활. 게다가 술술 풀리지 않는 답답한 영어와 생소한 문화 속에 살아가야 하니 안쓰럽기도 한 그의 미국생활이었기에, 난 진심으로 그의 은퇴를 축복했다.

하루는 그이가 동네의 미국인 성인 합창단에 들어갔다. 남자회원들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아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잘 버티었다. 지휘자는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합창단은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다. 발표할 때마다 표를 판 돈으로 기금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도 공짜가 없다. 1980년

90년대 같으면 악보와 테이프 정도는 후원해주었을텐데, 지금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라 소소한 경비도 회원들이 충당한다. 자주 돈 이야기가 나오니 조금 스트레스 분위기란다.

합창단 경험이 없던 남편은 영어악보가 읽기 어려워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연습했다. 연말 발표회 날이 왔다. 빨강 나비넥타이가 없다고 하니 다른 회원이 빌려주었다. 재미있게도 나는 나비넥타이를 맨 나이든 남편의 학부형이 되어 표를 사서 음악회에 참석했다. 오십여 명의 가족과 친구들이 손에는 디지털 사진기를 들고 나름대로 추억을 찍었다. 특별출연한 아이들과 어울려 부르는 음악발표를 강당에 앉

아 한참 듣다 보니 감개무량해졌다. 아니, 바로 저 무대는 19년 전 우리 딸아이가 합창단에서 활약하던 장소가 아닌가!

음악 선생님 미스터 켈러가 딸의 독특한 저음을 찾아내 합창 중에 독창을 시켰던 무대였다. 또, 일 년에 두어 번은 여러 학교와의 합창 경연대회에 출전하느라고 버스를 타고 주말이면 다른 주로 떠났던 딸아이. 그때 나는 딸의 합창단 과외활동을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없었다. 집안일로 신경 쓸 일이 많았고, 이민 초기라 영어회화도 잘 안되어 학부형회의에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

딸의 10학년(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기말이었다. 성적표를 본 딸아이가 C 학점을 받았다고 했다.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B도 아닌 C라고? 맨날 방과 후에 개인생활을 희생하며 연습하는 합창단은 모두 우수생으로 인정받아야 할 터인데,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C 학점을 주다니. 엄마들이 열심히 합창단 모

임을 따라다니며 기금을 만들어주던 케런과 레이첼은 A 학점을 받았는데, 설마 인종차별인가.

이해할 수 없다며 딸은 진학 걱정으로 눈이 붓도록 울었다. 한 때 가수가 되고 싶었던 딸아이가 합창을 지도하던 음악 선생님의 의해 꿈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다. 딸의 슬픈 얼굴을 보며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당황했다. 며칠이 지나니 딸아이가 방과 후에 하는 음악반, 미술반, 테니스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몸을 고단하게 하는 과외활동을 접고,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것이다.

어쩌면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른다며 딸을 위로했다. 실제로 매일 딸은 피곤하여 다른 과목의 숙제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그만두려니 큰 아픔이었지만, 그런 시간들은 딸에게 귀중한 인생 공부가 되었다. 이웃에는 그 음악 교사가 살고 있는데 섭섭하여 한동안 길에서 만날까 두려웠다. 최근 동네 투표소에서 나는 인사를 했는데, 세

월이 흘러서인지 다행히 우리 부부를 알아보지 못했다.

졸업반인 12학년 봄, 대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딸을 위하여 틈틈이 집에서 노래를 부르라며 우리는 노래방기계를 사주었다. 일본제품 가라오케만 구경하다 삼성에서 최초로 만든 한국제를 사는데 1,200달러도 아깝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딸의 꿈을 밀어주고 싶었다. 이제 노래방 기계는 사랑받는 우리 집의 골동품 가보가 되었다. 지난날,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학교 대표로 뽑혀 미국 애국가를 부르는 딸의 노래를 백인들이 경청할 때의 자랑스러움! 딸은 직장에 다닐 때도 어디서건 노래 초청을 받으면

기꺼이 달려갔다. 재능을 키워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다양한 인생체험과 감사함으로 딸이 살아갔으면 한다.

아, 19년 후에 딸이 노래를 불렀던 무대에 아버지가 서서 노래를 부르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음악교사로 은퇴한 시속도 피아노, 단소, 톱, 아코디언, 하모니카 연주로 내 출판기념회 때 청중을 즐겁게 했는데 유전 인자는 무시할 수 없나 보다. 종종 호화유람선을 타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인들은 여행을 잘 가지 않는 우리 부부를 이상하게 여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과 또 어려운 사람에게도 조금씩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만의 스타일이라고 말해줄까.

월간 '맑고 향기롭게'와 뜻을 함께할 작가를 모십니다.

- 창작 문학(시, 수필, 에세이, 칼럼, 카툰, 1면 만화)
-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
- 회원 투고, 작가의 문학작품은 수시 접수 및 문의 받습니다. 법인사무국 전자우편(clean94@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이름, 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글 • 강인철

언제나 그러하듯 한 해가 저물고 세밀이 가까우면 많은 생각들이 오간다. 처음에는 온갖 희로애락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섭섭했거나 노여웠던 심사는 사라지고 고마운 일과 감격스러웠던 보람만 남는다. 그럴 때는 가슴 가득 밀려오는 뿌듯함에 무언가 뜨거운 불덩이가 온몸을 휘~감아 도는 것 같아 여간 흐뭇하지 않다. 해를 거듭해도 푹푹함이 가시지 않는 한 친구를 생각하면 그 가루함이 눈물겨울 정도이다. 그는 K무역회사 서울지사를 지냈고 정년퇴임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으나 만만찮은 세상은 그를 편케 놓아두지 않았다.

몇 번의 시련 끝에, 어느 날 백두산

이나 다녀오겠다며 훌쩍 떠났다가 젊은 시절 업무상 오간 적이 있던 길림성 연변의 화룡시청(市廳)에 인사차 잠깐 들렀던 것이 새로운 운명의 계기가 되어 지금은 아예 부인까지 동반해 연변사람이 되었다. 화룡시 정부로부터 동성경로원 운영권을 넘겨받은 그는, 지난날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의 남은 식솔들과 의지할 곳 없는 그 후손들까지 함께 돌보면서 '기왕 시작한 일 시늉만 낼 순 없다'는 신념으로 경로원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의 사재(私財)까지 아낌없이 보태고 있는 그의 정성은 산 넘고 물 건너 서울까지 전해졌고 우리 모임 회원들의 마음마저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단원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집에서 잠자고 있던 한복을 모으고 방

한복과 신발, 내복, 양말, 비누, 수건, 재미있는 책, 구급약품에 북, 장구 등 민속 악기들까지 푸짐한 선물을 마련하고 기왕이면 '국악한마당'으로 기쁨과 웃음도 선사하자며 맹연습 백일만에 중국 땅 연변으로 향했다.

연길공항에서 약 1시간 거리인 낮설고 물신 화룡시 동성진구 해란강로 1번지. 가족들이 한가로이 노닐고 있던 뒤뜰에는 정로원 운영에 1급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치커리' 농사가 수확을 끝낸 풍성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본시 농사란 주인의 발자국 따라 열매를 맺으며 가꾸는 자의 땀방울 만큼 수확이 정해지는 착하디착한 거래(?)가 아니던가. 금년에 수확한 것이라며 내온 따끈한 치커리 차(茶)의 향이 일행의 여독을 훈훈하게 달래 주었다. 황무지나 다름없었다던 그곳이 오늘날 낙원(樂園)으로 변하기까지 수년을 참고 견디며 쏟아 부었을 친구 내외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성이 어떠했을지는 가히 짐작이 가고

도 남을 일이었다. 그런 희생과 봉사의 열매로 조국의 해방운동에 몸바치신 선열의 후손들이 이곳 동성정로원에서 여생을 편히 쉴 수 있음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싶다. 아니 그것은 필시 지난날 독립운동가의 끊는 피나 다름없는 각오로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 친구(李원장) 내외가 손발로 일구어낸 인간승리의 결과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 일행이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우선 건강한 조국의 웃음으로 밤새워 얼싸안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었다. 참으로 장하고 또 장한 어르신들의 과거사는 교과서에서 배운 독립 운동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였다.

어느덧 90수를 헤아리는 그들이 지난날에 겪었을 천신만고의 삶을 어루만져 드리며 일제(日帝)의 만행에 찢기고 할퀴어 육신조차 온전치 못한 분들에게 늦게나마 수족이 되어주고 있는 친구 내외의 봉사하는 모습은 하늘의 천사를 닮았다. 만약 친구네가

아니었더라면... 하고 잠시 상상을 해보니 외로운 그분들의 서글프고 안타까웠을 삶들이 아찔한 현기증으로 다가온다.

다음날 우리 단원들이 선사해 드린 '국악한마당 위로연' 조차 한비탕 웃음판에서 끝내는 울음바다로 변하여 나와 내가 한 겨레임을 새삼 확인해 보았던 순간, 엇그제 백두산 등정길에서 다 표현하지 못했던 희비의 엇갈린 감정들이 눈물로써 가늘 길이 없었다.

인간은 '감격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했던가, 다음날 연길시 조선족예술단 김철(金哲)단장으로부터 뜻밖의 초청제의를 받아, 마침 공연 중이던 연변동포를 위한 인민예술공연대공연에 특별출연, 그들과 함께 우리가 준비한 사물놀이 한마당을 선사할 수 있었음은 잊지 못할 보람이요 기쁨이었다.

연변의 등불인 친구 이(李瀟)원장과 지내온 서울에서의 인연으로 연변까지 달려간 것을 생각하면 불가

佛家)의 연기설(緣起說)이 자꾸만 떠오른다. 더러는 인연 중에 악연(惡緣)도 있어 '모진 놈'의 배은망덕으로 가슴 아파 본 적도 없지 않으나 이(李)원장과 같은 선연(善緣)이 99%라 언제나 행복하다. 친구 덕분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까지 뵈 수 있었던 인연은 더 큰 행운이었기에 고마움이 두 배다. 귀국하던 날, 발길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했지만, 부디 친구내외가 더욱 건강한 심신으로 동성정로원의 모든 분들과 함께 새해에도 두루 만수무강(萬壽無疆) 하시기를.....

가

글 • 김선애(번역가)

지난봄, 그리스와 터키로 여행을 떠났다. 이스탄불로 가는 밤 비행기 창밖으로 새까만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였다. 나는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와 찬탄하며 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나는 그리스 아테네와 산토리니 섬,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을 함께 여행했다.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도록 함께 걸었다. 비가 내려도 좋았다.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모든 날이 그 자체로 좋았다.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중해를 보았다. 이 날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은 오직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산토리니는 굳이 아름다운 풍경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주민들의 일상적인 미적 감각이 곳곳에 녹아 있었다. 어디로 눈길을 돌리든 집과 식당과 좁은 골목골목마다 소박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이번 여행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곳은 산토리니의 레드비치였다.

붉은 절벽과 푸른 바다가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해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천천히 바닷가를 걸었다. 오월, 모래는 뜨겁고 바다는 차가웠다. 사람들은 옷을 벗어던진 채 바다로 뛰어들었다.

어머니는 눈부신 햇살 속에 찬란하게 반짝이는 맑디맑은 바다에 감탄하고 또 감탄하셨고, 그 옆에서 있는

나도 기뻐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행복하다.

여행길에서 멋진 풍경만큼 기억에 남는 것은 모르는 이의 친절이다. 아테네에 처음 도착한 날, 어머니와 내가 어느 작은 빵집에서 빵 하나와 오렌지 주스 한 팩을 사서 나눠 먹고 있을 때였다. 가게 주인아저씨가 불쑥 나타나더니 오렌지 주스 두 잔을 우리에게 내밀었다.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을 위한 선물이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참으로 고마웠다.

아테네와 산토리니를 떠나 마지막으로 여행한 이스탄불에서 나는 가족과 함께 거리에서 있던 조그만 여자 아이를 만났다. 소녀는 외지에서 온 내가 신기했던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미소 지으며 소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잠시지만 말없이 서로를 만났고, 소녀는 두 손 모아 내게 인사한 뒤 떠났다. 나도 소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따

스한 관심을 갖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 진정한 행복은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내가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씩 깨달아간다. 이스탄불의 크고 화려한 궁전을 보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명확해졌다. 소박하고 검소한 삶.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삶. 결국에는 다 놓고 갈 짐, 평생 무겁게 끌고 다녀 무엇 하리.

그리하여 모든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자기 자신이다. 여행을 하며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잘 알게 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그 역시 좋은 출발점이다. 나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나에게로 가는 여행은 계속된다.

(裸女)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이토록 깊은 밤, 폭풍우 속에 여자가 찾아올 리가 없지.』

거센 비바람 속에서 얼핏 여자의 음성을 들었던 원효 스님은 자신의 공부를 닦하며 다시 마음을 굳게 다졌다.

『아직도 여인에 대한 동경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루기 전에는 결코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자세를 고쳐 점차 선정에 든 원효 스님은 휘몰아치는 바람과 거센 빗소리를 분명히 듣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마저 아득함을 느꼈다.

『마음, 마음은 무엇일까?』

원효 스님은 둘이 아닌 분명한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무서운 내면의 갈등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지직」하고 등잔불이

기름을 튀기며 탔다.

순간 원효스님은 눈을 번쩍 떴다.

비바람이 토굴(土窟) 안으로 왈각 밀려들었다.

밀려오는 폭풍우소리에 섞여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스님은 귀를 기울였다.

『원효 스님, 원효 스님, 문 좀 열어주세요.』

스님은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망설였다. 여인은 황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스님을 불렀다.

스님은 문을 열었다. 왈각 비바람이 방안으로 밀려들면서 방안의 등잔불이 꺼졌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칠혹 같은 어둠 속에 비를 맞고 서

있는 여인을 보고도 스님은 선뜻 들어오란 말이 나오질 않았다.

『스님, 하룻밤만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여인의 간곡한 애원에 스님은 문 한쪽으로 비켜섰다. 여인이 토막으로 들어섰다.

『스님, 불 좀 켜 주세요. 너무 컴컴해요.』

스님은 묵묵히 화롯불을 찾아 등잔에 불을 옮겼다. 방 안이 밝아지자 비에 젖은 여인의 육체가 눈에 들어왔다.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몸 좀 비벼 주세요.』

여인의 아름다움에 잠시 취해 있던 스님은 펄쩍 정신을 차렸다.

공연히 들여봤나 싶어 후회했다.

떨며 신음하는 여인을 안 보려고 스님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비에 젖어 속살이 들여다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색심이 없다면 이 여인이 목석과 다를 바 있으랴.』

스님은 부지중에 증얼거렸다. 그리고는 여인을 안아 침상에 눕히고는 언 몸을 주물러 녹여 주기 시작했다.

풍만한 여체를 대하자 스님은 묘한 느낌이 일기 시작했다. 스님은 순간 여인을 침상에서 밀어냈다.

『나의 오랜 수도를 하룻밤 사이에 허물 수야 없지.』

이미 해골물을 달게 마시고 「일체유심조」의 도리를 깨달은 스님은 다시 자기 정리를 시작했다.

「해골은 물그릇으로 알았을 때는 그 물이 맛있더니, 해골을 해골로 볼 때는 그 물이 더럽고 구역질이 나지 않았던가.

일체만물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였으니 내 어찌 더 이상 속으랴.』

이 여인을 목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면서도 마음속에 색심이 일지 않으면 자신의 공부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다시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여인의 몸을 비비면서 염

불을 했다. 여인의 풍만한 육체는 여인의 육체가 아니라 한 생명일 뿐이었다. 스님은 여인의 혈맥을 찾아 한 생명에게 힘을 부어주고 있었다. 남을 돕는 것은 기쁜 일. 더욱이 남과 나를 가리지 않고 자비로써 도울 때 그것은 이미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별이 없을 때 사람은 경건해진다. 여인과 자기의 분별을 떠나 한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원효 스님은

마치 자기 마음을 찾듯 준엄했다. 여인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요염한 웃음을 지으며 스님 앞에 일어나 앉았다. 여인과 자신의 경계를 느낀 스님은 순간 밖으로 뛰쳐나왔다.

폭풍우가 지난 후의 아침 해는 더욱 찬란하고 장엄했다. 간밤의 폭우로 물이 많아진 옥류폭포의 물기둥이 폭음을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스님은 훨훨 옷을 벗고 옥류천 맑은 물에 몸을 담그었다.

뻗속까지 시원한 물속에서 무한한



희열을 느끼는데 여인이 다가왔다.

『스님, 저도 목욕 좀 해야겠어요.』

여인은 옷을 벗어 던지고는 물속으로 들어와 스님 곁으로 다가왔다. 아침 햇살을 받은 여인의 몸매는 눈이 부셨다. 스님은 생명체 이상으로 보이는 그 느낌을 자제하고 항거했다. 결국 스님은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너는 나를 유혹해서 어찌하는 거냐?』

『호호호, 스님도. 어디 제가 스님을 유혹합니까?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보시면서.』

큰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순간 스님의 머리는 무한한 혼돈이 일어났다. 「색안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이란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스님의 귓전을 때렸다. 거센 폭포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속하여 여인의 음성

혼돈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후비고 들어올 뿐.

「색안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을 거듭거듭 뇌이면서 원효 스님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폭포소리가 들렸고 감감했던 눈앞의 사물이 제 빛을 찾고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의식되는 눈앞의 경계를 놓치지 않고 원효 스님은 갑자기 눈을 떴다.

원효 스님은 처음으로 빛을 발견한 듯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았다.

「옳거니, 바로 그거로구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

스님은 물을 차고 일어섰다. 그의 발가벗은 몸을 여인 앞에 아랑곳없이

드러내며 유유히 걸어 나왔다. 주변의 산과 물, 여인과 나무 등 일체의 모습이 생동하고 있었다.

여인은 어느새 금빛 찬란한 후광을 띤 보살이 되어 폭포를 거슬러 사라졌다. 원효 스님은 그곳에 암자를 세웠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곳이라 하여 절 이름을 「자재암」이라 했다.

지금도 동두천에서 멀지 않은 단풍으로 유명한 소요산 골짜기에는 보살이 목욕했다는 옥류폭포가 있고 그 앞에는 스님들이 자재의 도리를 공부하는 자재암이 있다.

고등학생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15년부터 맑고 향기롭게 청소년 자원봉사자로 인연을 맺고 승가원 장애인동시실에서 월 1회 활동할 고등학생 봉사자를 찾습니다. 활동내용은 요가선생님의 지도하에 장애인동과 일대일로 짝을 맺어 내 짝이 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둘째, 셋째 일요일 중 가능한 날을 택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실한 고등학생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02. 741-4696 / 담당 : 안근호 간사)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14년 중앙모임의 여러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욕심내지 않고 나누고 양보하면서 우리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정직하게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 사업

- ① 월간 '맑고 향기롭게' 발행 : 12월 통권 238호 발행/중앙·경남·광주·대전모임, 길상사 활용 /월 11,000부
- ② 연꽃 스티커 배포 :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 길상사 안내실, 진영각 및 모금, 마음사업을 통하여 1만부 배포 /소식지 발송 봉사자 매월 25명 참여
- ③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 특강)
 - 6월 29일, 김창수 교수 초청 희망특강 '생각을 벗어나 희망이 보인다.'
 - 8월 31일, 황창연 신부 초청 행복특강 '노인이 웃는 세상 만들기'
 - 9월 28일, 방송인 이계진 초청 행복특강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불자의 삶'
 - 11월 30일, 윤무부 교수 초청 환경특강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 ④ 맑고 향기롭게 창립 20주년 기념식 & 음악회 : 3월 30일 / 각 지역모임 회원, 봉사자, 길상사 신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맑고 향기롭게의 20년을 되돌아보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고 후원, 봉사 단체, 개인 감사패 시상 및 음악회 진행
- ⑤ 길상사에서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시월의 마지막

막밤 : 10월 30일 /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 및 길상사 신행단체 봉사자간의 만남의 장, 시월의 마지막 밤 - 세월을 노래하다 가을 음악회 진행(길상사 공동주최)

- ⑥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및 길상사 창건 17주년 기념 맑고 향기로운 한미당 :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 예정(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공동주최)
- ⑦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CI · CI 매뉴얼 작업
 - 2014년 3월, 맑고 향기롭게 발족 20주기에 맞춰 소식지, 홈페이지에 공표
- ⑧ 맑고 향기롭게 심볼,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상품 시범 운영
 - 중앙모임 :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브랜드 포교 활성화, 문화상품 시범 개발 및 유티리품, 천연화장품 사용 증대를 위해 길상사 안내실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에 재환원하는 사업 추진 중
 - 지역모임 :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회원들 간의 모임 및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익사업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광주·대구모임 준비 중)

세상 사업

- ①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선정 및 후원
 - 전국 고교생 대상 총 3명 선정
 - 수업료, 학교운영회비 전액 지원
 - 4월 18일 장학증서 전달식 진행
- ② 복지시설 정기 방문 자원활동
 - 서울노인복지센터 : 매주 월요일, 점심무료급식 지원 노력봉사 / 매주 15~20여명 봉사자 참여
 - 승가원장애아동시설 : 매월 둘째&셋째 일요일, 청소년 자원활동으로 요가 봉사 / 매월 20명 참여
 - 묘화원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농사일 돕기 및 시설 정비 봉사 / 매월 20여명 참여
 - 진인노인요양원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청소 및 주방 봉사 (오후)놀이 활동
 - 월곡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 청소년 이용시설, 방과후 교실 운영 재정 및 물품후원
- ③ 나눔 행사 개최
 - 묘화원 : 10월 5일, 어르신&장애인 200여명과 함께하는 정원 파티
 - 진인노인요양원 : 11월 9일, '어르신의 마음' 국악 공연 및 노력봉사활동
- ④ 결식이웃 밀반찬 후원 사업
 - 매주 목, 금 독거노인, 결식아동, 극빈 장애인 및 일반 가구 지원
 - 현재 440가구 및 단체 1곳 밀반찬 27지 지원
 - 분기별 농협상품권 가구당 3만원 권 지급
 - 연 3회 명절(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특별 후원
 - 3월~11월 둘째 목요일 김치 전달
 - 연말 김장 김치 전달 : 가구당 약 17~18kg

⑤ 전화말벗 정기 활동

- 밀반찬 지원을 통해 결연을 맺고 있는 결식이웃, 장애인 가정에게 봉사자가 매주 1회 이상 전화하여 건강 및 인부를 묻고, 말벗을 해드리 는 활동

⑥ 대상자 사례관리 및 방문상담

- 밀반찬, 전화말벗 대상자 중 특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사무실에서 전화 및 방문등으로 사례관리 진행

⑦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 진행

-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모금 캠페인 진행
- 4월~11월까지 길상사 경내 월 2회 캠페인 활동
- 12월 중 난방비, 생계비 지원

⑧ 다음 희망해,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 캠페인

-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네티즌 상대로 모금 캠페인 전개

⑨ 아름다운 마무리 일환으로 '동전모금' 캠페인 전개

- 가정이나 회사 서랍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모아 빈곤노인 지원 사업 전개

⑩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봉사단체) : 월 정기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 청소년 1명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2명 : 법정성금 생전 지원 인연으로 분기별 물품 전달
- 극빈 장애인 생계비 지원

⑪ 극빈자 수술 및 의료비 지원 사업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및 수술을 못 받고 있



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재화에 필요한 의 료비 지원

- 7월 한 달 동안 추천받아 총 9명의 대상자를 선 정하여 1,800만원 지원

12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관등) 운동

- 법정스님께서 초창기 말고 향기롭게 운동으로 펼쳐서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등 밝히기 운 동을 되살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신 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등 밝히 기 운동 전개

13 정기 봉사팀과 사무국 간담회 진행

- 일반찬, 전화발벗, 서울노인복지센터, 묘화원, 승가원, 진인선원, 리폼, 장터 봉사자들과 정기 적으로 간담회 진행

자연 사업

1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 무소유 기행

- 생태주의자였던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는 숲기행 진행
- 출가 및 고향마을을 비롯하여 수행하셨던 사찰 들을 둘러보며 무소유 사상과 환경 사상을 접 목하여 회원들과 함께 공유
- 4월~10월까지 매월 첫째 토요일 실시 / 약 280 여명 참가
- 11월은 서울, 대구, 광주 자원봉사자 100명 참가

2 천연화장품 강좌

- 천연화장품(로션, 에센스) 및 천연 세제(삼푸, 비 누)를 직접 만들어 쓰는 강좌 / 매주 수요일 개 최 / 5주차 수요일 특강 운영 / 약 300여명 참여

3 의류 재활용 리폼 활동

- 헌 의류, 불량 및 지투리 원단, 한복 등을 기증 받아 가방 및 집화 만들기 활동 / 매주 화요일 진행 / 디자인 재봉틀, 재단 등 재능기부 봉사 자 활동 중 / 녹색나눔장터 판매

4 녹색나눔장터

- 4월부터 11월까지 마지막 일요일 길상사 경내 에서 개최
- 기증받은 헌 옷, 헌 책 등 판매
- 친환경 용품, 의류 재활용리폼 상품, 천연화장 품 홍보 및 판매

5 월곡 청소년 센터 옥상 텃밭 가꾸기 활동

- 센터 옥상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상자 텃밭 가꾸기 활동과 더불어 친환경 먹거리 활동 연 계, 일상에서 자연을 접하고, 텃밭을 가꾸는 즐 거움과 함께 수확한 농작물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 짐 / 매월 2회 진행

6 방과후교실 어린이 대상 농촌&자연체험 활동

- 7월 29일 성북구 관내 방과후교실 아이들 22 명과 연천 나룻배마을에서 "트랙터 타고 민동 선 투어 및 농작물 수확 → 옥수수 수확 → 점 심(시골밥상) → 임진각에서 물놀이 → 간식(찐 옥수수&과일)시간을 가지면서 농촌 자연체험 활동 진행

7 방과후교실 어린이 대상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마가렛 지역아동센터와 월곡청소년센터 어린이 들을 길상사로 초대하거나 직접 시설에 방문하 여 '로즈프레쉬스킨 올리브로션, 천연 립밤, 천 연 딸기차약' 등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진행

▶ 연대 활동

- ① 5월 6일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하는 친환경 체험 마당 및 녹색나눔장터 개최 길상사 행사 지원
- ② 9월 27일 제6회 사랑 나눔 연합바자회 참여(먹 거리 및 녹색장터)

▶ **지부 활성화 사업** : 지역모임 활성화 방안으 로 상근인력 지원 양성 / 인건비 최소 20% 이 상 자체부담, 사업 운영, 집행 가능한 지부, 사 업보고, 회계 결산 감사 가능한 지부로 제한 을 두어 집행

▶ **법정스님 진영각 운영** : 법정스님의 진영, 유품, 저서 전시 관리 운영

말고 향기롭게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및 소식 지 발송 안내

(사)말고 향기롭게는 마음, 세상, 자연을 두루 맑 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단 체로서 100% 회원들의 재정후원에 힘입어 활동 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은 회원 개개인이 자신과의 약속으로 정기, 부정기후원, 후원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자동이체, 온라인, 지로) 까지 스 스로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정관)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 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모임은 월간 '말고 향기롭게'를 발간하여 군법 당, 병원, 교도소, 복지단체등에 무료 배포하고 있

으며, 회원에게는 연간 소정의 우편비를 후원하는 분에 한해 개별우송하고 있으며, 길상사에서도 신 도 등록된 분에게 별도로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에서는 우편비와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해 반송 및 후원금 미납자의 경우 정리 작업을 비정 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2013년 1 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후원내역이 전혀 없는 회원의 경우 참여의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여 부득이 2015년 3월호부터 개별우송을 중지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익명으로 후원해주셨거나, 사정이 있어 후원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소나 후원사항에 변 동이 생긴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고 향기롭게 2015년 달력 우송 안내

11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원 이상의 기부금 을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해 2015년 달력을 우송 해드립니다. 12월 중순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간혹 달력이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님께서는 이때쯤 우편함을 꼭 체크해주셔서 소중하 게 제작된 달력이 분실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가해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에 12월에 후원이 확인된 분들에 한해서 내년 1 월에 추가로 달력을 우송해 드립니다. 또한 후원 을 하시면서 소식지를 받지 않는 분 중에 간혹 달 령 우송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주시면 조 치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달력은 '장천 김상태'작가의 '법정스



님의 죽비소리' 작품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무상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봉사자 모집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27지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다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눠주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노인요양원(진인요양원, 묘회원) 봉사자 모집

진인요양원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합니다.(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함께 출발) 묘회원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함께 출발)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상담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봉사자 모집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 중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이용시설로서 매일 2,0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점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고,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센터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또한 배식 관련 활동상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하며 미소지자는 가까

운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공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2일(화)/오전 10시

~12시/세계일화실

- 달력 발송 자원활동/11일(목)/오전 10시부터/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14일(일)/오후 14시~16시/살벌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연말감정 자원활동/12월 3일, 4일/오전 9시 30분~오후 3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길상사 주차장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11,12,18,19,26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1,8,15,22,29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청소년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4,21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7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21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화요일(23일)/오후 1시30분/싯달타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10,17,24,31일(수)오전 10시(삼풍, 로션, 에센스)/세계일화실, 비누는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2,9,16,23,30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월곡청소년 센터 옥상텃밭 가꾸기 활동/10일(수)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7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자원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맏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맏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 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른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 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른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 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맏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 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맏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른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른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일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일 셋째 목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반찬봉사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일 1,2,3주 토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범능 스님 노래,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8월부터 진행 예정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맏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다라니기도

- 일시: 12월 6(토) 오후 7시~9시
- 장소: 극락전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12월 13(일) 오후 9시
~12월 14(일) 새벽 4시
- 장소: 길상선원
- 법사: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12월 13(일) 오후 8시 30분
~12월 14(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준비물: 물, 수건, 좌복 보호대

추계관음기도 회향

- 일시: 12월 5(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동안거 결제

- 일시: 12월 6(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동지기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의 동지기도가 봉행됩니다.

- 일시: 12월 22(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길상사 창건 17주년 기념법회

- 일시: 12월 14(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천일기도 일정 안내

- 일정: 2014년 10월 11일 ~ 2017년 7월 6일
- 시간: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길상사 김장 안내

- 일정: 2014년 12월 9일 ~ 10일
- 장소: 공양간

신정합동차례

선망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공양을 올리는 신정합동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시: 2015년 1월 1(일)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 법회/기도명 | 일정 | 시간 | 장소 |
|-----------|--------------|-----------------------|------|
| 신정합동차례 | 1월 1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다라니기도 | 1월 3일 | 오후 7시 | 극락전 |
| 삼천배 철야정진 | 1월 10일 | 오후 8시 30분 | 극락전 |
| 성도재일 철야기도 | 1월 27일 | 오후 9시~오전 3시 50분 | 극락전 |
| 보름기도 | 1월 5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지장재일 | 1월 8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관음재일 | 1월 14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초하루법회 | 1월 20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극락전기도 | 매 일 |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 극락전 |
| 지장전기도 | 매 일 |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 지장전 |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 오전 11시 | 설법전 |
| 청년회법회 | 매주 일요일 | 오후 3시 | 적묵당 |
| 중·고등법회 | 매주 일요일 | 오전 11시 | 침묵의집 |
| 어린이법회 | 매주 일요일 | 오전 11시 | 소강당 |
| 거사님 정기법회 |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 오후 1시 30분 | 설법전 |
| 문수회 정기법회 | 매월 셋째 월요일 | 오후 1시 | 소강당 |
| 보현회 정기법회 | 매월 음력 초하루 | 오후 1시 30분 | 지장전 |
| 보리회 정기모임 | 매월 둘째주 | 오전 11시 | 도서관 |
| 합창단 정기연습 |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12시 | 소강당 |
| 새신도 교육 | 매주 일요일 | 오후 1시 | 소강당 |

길상사 창건 17주년 기념법회

12월 14일(일)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가 부처님 전에 향 사르며 첫 목탁을 올리던 날은 1997년 12월 14일입니다. 길상사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길상사는 12월 14일 극락전에서 17주년 창건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심안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우뚝 세워짐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12월 14일(일) 오후 2시 / 설법전

2014년의 끝자락에서 회원님과 봉사자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을 비롯하여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주인 된 마음으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2014년 활동을 돌아보는 정겨운 송년회와 더불어 ‘길상사의 창건을 기념하는 맑고 향기로운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1부.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 2014년 활동 보고 & 모범 봉사자 시상

2부. 맑고 향기로운 한마당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가족이 참여하는 축하공연과 장기자랑이 진행됩니다.

